



성전 건축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이번 주 묵주기도 중 기억할 분들 (9월 14일 ~ 9월 20일)

월	조현숙 스텔라, 이해원 프란치스코, 김창일 요한보스코, 임혁진 라우렌시오, 홍성우 마티아, 김종구 아벤티노, 최해옥 드보라, 신미선 글라라, 조광자 카타리나, 강연자 베로니카, 최옥희 켄마, 김정옥 아네스, 노남덕 보니파시오, 박향화 데레사, 김진옥 수산나
화	박치영 마르코, 양천석 토마스, 김정옥 헬레나, 강성숙 글라라, 홍기석 요한, 김윤철 바오로, 최계성 로사리아, 김정숙 아가다, 조범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양인옥 바울라, 박주현 체칠리아, 유재정 미카엘, 유연주 히야친타, 신흥재 토마스 아퀴나스, 정용현 미카엘
수	한상준 바실리오, 유미옥 효주아네스, 이상배 미카엘, 윤이나 카타리나, 김현정 라파엘라, 김춘자 엘리사벳, 허민영 베로니카, 최유주 에밀리아, 최승수 요셉, 이진희, 이진경 베로니카, 이윤경 소화데레사, 원소영 세실리아, 박주영 비비안나, 김정수 스텔라
목	황상숙 세실리아, 차인호 라파엘, 강종임 소피아, 김태호 마리아, 정재택 야고보, 손미자 베로니카, 김주문 안나, 진규병 고르넬리오, 김창환 스테파노, 이근희 안젤라, 김종섭 안셀모, 송경화 아가다, 양명순 글라라, 손세은 요세피나, 원희섭 유스티노
금	김재현 베드로, 박종각 천주의 성 요한, 원현철 바오로, 홍귀봉 안드레아, 김태형 요셉, 이해숙 마리아, 김미령 리디아, 김정순 도미니카, 김명섭 요아킴, 강지희 로사리아, 윤정애 루시아, 강명숙 아가다, 김규리 리드비나, 최옥경 카타리나, 김귀자 헬레나
토	김수림 라파엘, 배경준, 박미애 베로니카, 임정미 루치아, 유수빈 헬레나, 김세훈 다미안, 장현영 세레나, 김상숙 가롤리나, 김광희 갈리스도, 박현택 마태오, 김영숙 카타리나, 성재창 베드로, 조혜원 데레사, 이은숙 사비나, 황어순 요셉
주일	이남순 마르첼리나, 이숙녀 스테파니아, 원영숙 세실리아, 홍상화 바오로, 이명숙 세실리아, 정문순 도미니카, 김용환 사도요한, 이건재 데미지오, 이상봉 보나벤투라, 최미영 미카엘라, 이상혁 테오파노, 이슬기 데레사, 정선영 엘리사벳, 전진찬 안드레아, 김영석 바오로

레지오 훈화 2-1. 성모 마리아에 관한 교의 -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1)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일은 초대 교회까지 소급된다. 3세기경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기도인 ‘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에 이미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부르고 있다. “거룩하신 천주의 성모님(하느님의 어머니), 저희를 지켜 주시고, 어려울 때 저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지 마소서, 또한 온갖 위험에서 언제나 저희를 지켜 주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마리아의 ‘하느님의 어머니 되심’은 마리아께서 여신이심을 뜻하지 않고, 그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신성 때문이라는 사실이 에페소 공의회(431년)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런 이유로 교부들은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훗날 칼케돈 공의회(451년)는 이를 재확인하였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는 마리아께서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처럼 마리아의 ‘하느님의 어머니 되심’은 마리아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당시 종교 사회에서 퀴벨레(Kybele), 이스타르(Istar), 디아나(Diana) 등을 여신으로 섬기던 이방인들의 여신 숭배와 분명히 구별된다.



2026 창조시기 주제와 상징

살아 있는 물

4. 에제키엘서 47장 9절과 12절의 생태학적 해석

이 강물이 바닷물을 맑게 되살릴 것이라는 에제키엘의 주장(에제 47,8-9)은 읽는 이를 놀라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신학적으로 결정적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언급합니다. 예언자는 자연의 순리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반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해는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물고기도 없고 식물도 없으며 물이 흘러나올 곳도 없는, 다시 말해 생명이 들어가면 죽는 장소였습니다. 소금물은 불모지와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에제키엘은 맑은 물이 바닷물을 치유한다고 선언함으로써, 하느님께서 혼돈의 물에서 질서와 생명을 이끌어내시는 창세기의 이미지를 반영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에제키엘은 그 강이 사해를 지나쳐 간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강이 사해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신학적입니다. 곧 하느님의 생명이 가장 죽어 있고 가장 희망이 없는 곳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라파’는 ‘치유하다, 회복시키다, 온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생명은 인간의 관리를 통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세계와 상호작용하시는 하느님의 움직임에 의해 새로워집니다. 바닷물도 인간의 관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치유로 맑은 물이 됩니다. 하느님은 죽음의 자리를 지나쳐 가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 나무들은 결핍과 부족함의 시기를 넘어선 생명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해의 물이 맑아진 것처럼, 자연의 질서를 거스른 이 장면도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이 발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세계가 회복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는 본디 한 계절만 열매를 맺으며, 가뭄, 해충, 전쟁, 기근에 취약합니다. 에제키엘이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회복하신 질서 안에서 생명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결실은 강수량의 형태나 토양의 상태가 아니라, 하느님의 끊임없는 현존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에덴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넘어섭니다. 에덴에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창세 2,9) 온갖 나무들이 있었지만, 이 미래의 나무들은 한 해에 열두 번 열매를 수확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그리움(nostalgia)을 드러내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한층 더 풍성한 회복입니다. 말하자면, 에덴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 요한은 에제키엘서를 반향하여, 그 강과 생명나무를 우주적, 생태적, 심지어 정치적 치유에 대한 궁극적 지평으로 제시합니다(묵시 22,2 참조).

주: 이 단락은 에제키엘서의 강에 대한 환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바다와 대양의 가치를 낮추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바다와 대양 또한 소금물로 이루어졌으나 살아 있는 물로 창조되었습니다. 실제로 바다는 지구 생물다양성의 많은 부분을 품고 있는 보금자리입니다(창세 1,21 참조). 더 나아가 대양은 기후 조절에도 기여합니다.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23주일

주일 헌금	1,009,000	주일헌금(송정)	209,000	교무금	705,000
양성, 복지, 원로	50,000	미래 기금	40,000	감사헌금	890,000

교무금 정하숙, 소옥선, 김부용, 서정화, 박희갑, 전용기, 전명호, 정구호, 권병연, 조인순, 사정애, 최미경, 문창순, 정현희, 최윤정, 지금예, 주선옥, 최용범, 양금례

감사헌금 신오순(안나) 50,000 김하옥(카타리나) 20,000 이인열(올리타) 20,000 김영희(헬레나) 100,000 사정애(수산나) 100,000 김후태(안드레아) 100,000 피금순(루치아),이광호(시몬) 500,000



성전 건축 기금 현황 2026년 9월 11일 기준

구 분			이번 주	2026년 누계
수입	우리 본당	교무금 납부시 건축기금	165,000	10,382,000
		약정 기부	3,630,000	152,970,000
		2차 헌금	842,000	9,979,950
		기타 수입		17,505,463
	외부 모금	타본당 모금	2,780,000	151,187,326
		매일미사	11,500,000	78,245,000
		평화방송	74,926,209	108,622,209
		가톨릭 평화 신문	1,223,000	13,785,000
		가톨릭 신문	1,520,000	42,148,000
		기타 후원		21,539,000
	합 계		96,586,209	606,363,948
지출	건축	설계비		36,041,570
		건축 준비비		7,560,000
	모금 홍보	광고비	6,600,000	52,351,200
		모금 준비비	2,045,110	4,068,140
		봉사자 지원비		1,440,850
	합 계		8,645,110	103,506,870
현 잔액			1,169,704,994	

본당 약정기부 약정기부 143세대 187,300,000원 중 152,970,000원 납부 (납부율 81.67%)

최삼순, 황석조, 김종광, 송기준, 김승옥, 김명숙, 김주하, 최원석, 이홍용, 이종문, 이종석, 안수진, 박영호, 최종호, 이경희, 이은순, 강민정, 이천희

타본당 모금

스무쥬성당 240,000원 정종섭, 신상순, 김옥자, 최정용, 우정림

죽림동성당 430,000원 김혜란, 성재창, 조혜원, 함이안, 강영심, 이은숙, 이정희

교동성당 2,110,000원 황어순, 이숙녀, 원영숙, 허민영, 홍상화, 이명숙, 조은미, 정문순, 김용환, 김송철, 이건재

매일미사 최양자, 정혜진, 김영희, 박태원, 신혜숙, 김호순, 천애희, 이홍림, 손영자, 이해성, 김도호, 김혜진, 박성숙, 장윤정, 윤대엽, 정경란, 박만호, 김다훈, 성순화, 양태석, 명정진, 이지훈, 이승훈, 박예지, 변선아, 박은경, 김계순, 이승선, 정은, 최선희, 김유식, 김기창신부, 김재웅, 김정화, 박정아, 이건, 김세빈, 손혜선, 서이재, 안종훈, 박형진

평화방송 김학의, 양진우, 김용일, 김복태, 신명희, 권은미, 김귀덕, 공은숙, 홍승빈, 이안나, 조현미, 장바울라나, 김혜숙, 이복님, 권수선, 최성애, 하정우, 김원자, 박영식, 이연실, 김정호, 최현숙, 조진규, 이경이, 박세종, 안경순, 김태형, 김윤경, 신위숙, 오주영, 김광식, 이정선, 박미학, 최일홍, 최영아, 최정애, 야고보, 김수연, 권영진, 정미순, 이해을, 이재희, 고담미, 이원경, 김정현, 배석다, 최현수, 박묘열, 김미경, 최혜진, 김진숙, 김성아, 박경숙, 김미선, 주영란, 이범우, 김선애, 김은숙, 강경옥, 박송해, 예미경, 고윤희, 조완, 유창목, 김지현, 정효선, 윤용장, 길재원, 이부옥, 방한실, 장영식, 장순필, 김경희, 김유리라, 윤서원, 서명림, 윤성현, 장명덕, 김술, 최지혜, 박혜숙, 이성심, 지영, 고윤희, 황경희, 김나류, 임용변, 정태영, 이미선, 이상미, 전준옥, 최병순, 고순자, 박춘희, 최재형, 정민, 노건례 오, 추경숙, 김정길, 김점향, 이해영, 이정숙, 윤향숙, 김도연, 이정금, 조영권, 강현준, 신선미, 강윤진, 이진숙, 김용진, 유자혜, 안미란, 윤인숙, 원숙경, 염기선, 이준엽, 김영자, 신병철, 구민우, 용란희, 성정자, 조은아, 김화순, 김경숙, 이용우, 허윤희, 이금란, 김동진, 김재록, 김경주, 김재하, 변경자, 이선주, 이정숙, 신로미, 강애주, 이현규, 황영옥, 허인정, 최두원, 홍성학, 정영희, 천재금, 김광훈, 박정자, 이서, 오명희, 김창구, 김진희, 권명희, 이성옥, 김성수, 양병숙, 박상훈, 이기숙, 김치문, 김미영, 문명근, 방경희, 이광희, 서영진, 황해성, 송줄리안나, 이덕식, 노영인, 김명희, 영철, 귀현, 유수인, 최수영, 김은희, 김영재, 이양희, 국진주, 이복희, 석월계, 김금환, 박다물, 이채빈, 김영미, 송향진, 김경호, 문성호, 안영례, 장복례, 이정우, 정기병, 김구용, 구민주, 서미애, 이일화, 김명자, 주시하, 윤병준, 임영숙, 서선주, 이종임, 장강규, 주세노리나, 강민숙, 남궁지영, 김은영, 나진옥, 김미연, 박수옥, 박선영, 최현진, 박승호, 오명숙, 이정민, 문봉선, 장지향, 임경숙, 김양석, 최현아, 김미희, 조연순, 마수정, 김성훈, 박혜영, 김영진, 모니카, 서은주, 이데레사, 홍경희, 최인자, 탁마리아, 탁데레사, 조인례, 박삼식, 이미하, 김정희, 안젤라, 조남두, 박지숙, 민병숙, 고민홍, 선숙자, 공영완, 김기원, 홍명자, 박양, 서혜란, 윤귀자, 유정일, 전순자, 강상준, 김신호, 안지훈, 안형신, 정경자, 최영옥, 박은선, 이옥자, 최경남, 안성원, 한상용, 김영미, 강영임, 김희석, 김춘자, 조형연, 박정희, 강영수, 정복환, 이세진, 권용경, 문정혜, 한길자, 박정자, 강정아, 황부호, 손영혜, 김미자, 박지윤, 정세운, 김병래, 장경자, 홍예순, 고정희, 김경자, 김경분, 우분이, 김성열, 박재성, 황선하, 강희정, 김추자, 김성민, 주덕자, 이종길, 김슬기, 류선이, 차희창, 이상재, 김영자, 최향자, 배영락, 김창숙, 원영임, 최정근, 고순, 정재옥, 고재명, 오문희, 이정민, 정규형, 강혜진, 김인용, 박찬임, 이옥배, 김상영, 이정순, 김복태, 서미숙, 김정순, 박정희, 함영미, 김성희, 조은경, 염명숙, 장영진, 박준범, 윤혜경, 김신애, 최순자, 김현정, 최재형, 최재왕, 홍성호, 류신혜, 정효현, 박은해, 이미영, 이은옥, 이준경, 이공희, 서유정, 김복남, 원영경, 이남희, 이규성, 안아서, 박태규, 장민자, 권정순, 안지호, 안지엔, 최은경, 임창선, 이옥희, 오경희, 남옥경, 기우석, 문재원, 강명애, 이진영, 차봉이, 정광희, 김미자, 성일경, 마리아, 박인숙, 임정자, 차성용, 신수연, 조병현, 김복술, 유순봉, 김동례, 박상준, 민진, 김거문, 한영아, 다니엘멀로, 홍복기, 한준섭, 박수영, 신흥범, 허영희, 양희, 양건, 이지영, 조정혜, 송영실

가톨릭신문 황인선, 최남규, 조효민, 윤다희, 이옥선, 전희진, 손기락, 김훈, 이봉수, 정승, 경재옥, 신지훈, 김정은, 도정순, 이재우, 최정이, 유연숙, 김기현, 서성구

가톨릭 평화 신문 황봉철, 김미옥, 오미지, 윤소영, 정베르나도르, 김익현, 신경자, 정베드로, 박동옥, 신창우, 송영인

지출

광고비 가톨릭신문 9월 광고료, 매일미사 11월호 광고료

모금 준비비 ARS 유지관리비 88,000 모금용 휴대폰 요금 17,270 제초제(무 농사) 90,900

실리콘백 구입(판매용) 1,840,000 입금내역 문자알림 서비스비용 8,940



미사 참례 현황

총 신자 711명 중 주일미사 196명 참례 / 참례율 : 27.57%

평일미사	토 (9/5)	월 (9/7)	화 (9/8) 내촌 / 본당	수 (9/9)	목 (9/10)	금 (9/11)
	18명	13명	21명 / 26명	17명	27명	15명
주일미사 (9/6)	내촌공소	토요일 저녁	두촌공소	송정공소	교종미사	철정공소
	23명	34명	22명	30명	66명	21명